

ACTION 하나, 수업권

여성의 언어야~ 여성의 이론아~ 살아나라

-여성학 살리기

아시나요? 우리학교에 여성학과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여성의 경험에 언어와 이론을 제공해주는 바탕이 될 여성학과가 폐과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ACTION!미미'선본이 여성학 연계전공을 살리기 위한 Action을 시작합니다.

▷ 여성학 폐과 위기 ◁

여성학 연계전공이란?

여성학은 연계전공 중의 하나입니다. 연계전공은 전공과 관련 있는 2개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공의 교수가 강의를 개설하거나 외부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하거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졸업을 할 수 없는 이상한 전공, 오갈 곳 없어진 여성학과 학생들?!

현재 여성학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한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수 없어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의 자체가 제대로 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성학 복수전공을 신청했던 학생들은 전공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전공을 신청하고 싶은 학생들도 강의가 부실하고 대부분 폐강되자 전공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로 여성학 전공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도 부실한 수업 개설에 수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성학 수업이 자주 폐강되고 폐과 논의까지 흘러나오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성학과 폐과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학우들이 우리 학교에 여성학 전공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여성학 연계전공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학 개설 강좌 수와 전공생 수는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학 연계전공을 담당하는 학교 행정상의 부실 때문입니다. 여성학과를 개설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홍보와 예산 확충을 통한 장학금 및 다양한 전공 프로그램 개설, 그리고 전공이 일정정도 궤도에 오를 때 까지 수강 인원이 적어도 폐강을 하지 않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에는 기초 인문·사회과학 강의의 경우 매우 소수의 인원, 심지어 1명의 학생만이 수강신청을 해도 교수가 강의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강의가 개설됩니다. 그러나 여성학과를 충실히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 측의 노력은 미비하였고 결국 폐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개설 수업은 '문화철학', 폐과 위기는 학생 탓?

학교 측은 연계전공에 대한 지원 및 양질의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학 수업이 수강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며 폐강시키고 연계전공을 신청한 학생 수가 너무

적다며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성학과 학생들은 전공생들이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수업 개설과 개설된 강의를 폐강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설된 과목 수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성학에 중점을 둔 자체 수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개설된 수업들은 수강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며 폐강시킵니다. 심지어 C/L(Cross Lecture) 과목들은 대부분 여성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는 수업들(철학과 전공 수업 '문화철학', '사회철학', 국문과 '현대문학작가론', '현대문화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ACTION!미미', 학교에 '여성학 살리기 ACTION'을 촉구하다 ◁

하나. 여성학 폐과 논의 중단

둘. 여성학을 비롯한 연계전공에 대한 지원 예산 확충

셋.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폐강 없는 강의 개설

넷. 전공생이 걱정선에 이를 때 까지 전공·비전공 구분 없이 강의를 개방, 필수교양으로 여성학과 전공 수업 개설

다섯. 다양하고 심도 있는 강의 개설. 여성학 및 연계전공 분야의 전문 교·강사 확충

여섯. 여성학 및 연계전공 사무실, 연구소를 별도로 두고 활동 강화

일곱. 여성학 및 연계전공생들에 대한 성의 있는 지원

여덟. 여성학 및 연계전공 관련 교양 수업 확충

아홉. 기타 여성학 및 연계전공을 살리기 위한 방안 강구 및 실행

▷ 여성의 언어야, 여성의 이론아~ 사랑해♡ ◁

학내 여성주의 담론과 ACTION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 존재합니다. 대학에도 이러한 한국 사회의 자체의 부조리와 대학이라는 환경에 고유한 성차별과 폭력이 있지요. 학내 여성주의 액션은 이러한 사회·대학 내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은 진보적인 담론을 생산해 사회의 청정기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담론으로 여성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반을 닦아 사회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학내 여성주의 담론과 활동은 여/남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이 됩니다.

여성학과의 필요성

여성학은 여성의 경험과 여성주의 액션의 이론적·언어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 동안의 언어와 역사, 학문은 여성의 생각과 경험을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성학은 여성의 고유한

경험과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언어를 제공하고 여성의 고유한 경험과 시각을 이론을 이론화합니다. 또한 여성학 전공 수업들은 여성주의를 접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소위 '돈이 되는' 학과에만 지원을 몰아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문·사회학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양질의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또한 이 사회의 진보적 담론을 생산해야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학과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학문 발전은 기초학문의 토대 위에서 학제 간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ACTION!미미'선본은 여성학 살리기 ACTION을 지지합니다!